

미용 교과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진수

공주 영상 정보대학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Cosmetology Education Curricula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Jin-Soo Kim

Dept. of Hair design, Kongju Communication Arts College

(2003. 9. 17 접수)

ABSTRACT

This research was attempted in order to raise the actual effectiveness of beauty education by reviewing the problems on beauty education curricula of junior colleges and arranging their countermeasures. This thesis suggests improvement plans of curricula in Korean beauty education as follows.

First, one of the main aims of beauty education sought at a junior college should be verified that it is to raise beauty leaders, furthermore, by including artistic knowledge on top of skill-based education purposes we shall put more efforts improve and sublimate beauty art, not only as skills but also as art.

Second, it is necessary to fix the department titles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curricula. The titles have to be standardized for the right recognition of each curriculum by dividing beauty into hair beauty, skin-care or make up with each curriculum based.

Third,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major requisite subjects to be completed in certain units by each major among colleges as well as class hours.

Forth, the curriculum system needs to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school system for example suitable curricula for each school system level of private institutes and secondary vocational institutes, high school, junior collage, university, post graduates, etc, I have to be developed and enforced.

한국패션뷰티학회지 제1권 1호

Key words : beauty education(미용 교육), curriculum(교과 과정), hair beauty(머리 미용), skin-care(피부 관리), make-up(메이크업)

I. 서론

한국에서의 미용교육의 첫 걸음은 멀리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미용학교로는 1928년 11월에 설립된 경성 미용학교이며, 미용교육의 틀을 구성하였던 것은 해방 이후 김상진(金翔鎭)의 「현대 미용학원」 설립으로 간주된다. 이후 권정희(權貞姬)의 「정화고등기술학교」, 임형선(林亨善)의 「예림고등기술학교」 등은 미용교육의 선구적 역할은 물론, 이를 통한 한국 미용사의 한 획을 긋기에 이르렀다. 한국 미용교육의 체계화는 미용사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면허시험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한 1961년의 「미용사 및 미용사법」 제정이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된 세계화 추세는 미용의 급속한 발전을 촉발시켰으며, 나아가 미용의 전문화된 지식과 보다 세련된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 일로에 오르면서 전문대학에 미용과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전문대학에서의 미용교육은 단순히 미용 인력을 배출한다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미용기술의 전문화와 세계화라고 하는 보다 큰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과명칭도 미용과,¹⁾ 피부 미용과,²⁾ 뷰티디자인과,³⁾ 코디메이크업과,⁴⁾ 메이크업 코디과,⁵⁾ 멀티뷰티코디네이션과,⁶⁾ 뷰티코디네이션과⁷⁾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계열로 운용되기도 하고, 헤어, 메이크업, 피부 관리 등 세부전공으로 나누어 설치한 곳도 있을 정도로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교들도 광주여자대학교가 미용과학과를 설치한 것을 필두로 본격적

인 미용관련 학과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몇몇 대학원에서도 미용관련 석사 학위자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고등교육현장에서의 미용전공 증가 현상은 미용에 대한 가치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미용지도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미용계의 장래를 밝게 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미용교과과정의 발전적인 방향의 모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미용교육의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미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용관련 학과를 설치한 전국의 2년제 대학 중 20개 대학⁸⁾과 의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관련 자료의 수집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들 각 실증자료에 대한 내용분석 방법을 택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미용교육의 발전과정을 검토한 후, 미용교육 교과과정 실태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 미용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미용교육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 교과과정 개편마련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우리나라 미용교육의 발전 과정

1. 우리나라 미용교육사 개관

한국에서의 근대적인 미용교육의 시작은 1928년 11월 설립된 「경성미용학교」에서 출발한다.⁹⁾ 일제강점기인 당시에 직업학교로서의 미용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점은, 미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에는 김상진(金翔鎭)이 「현대 미용학원」을 설립하면서 미용교육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였으며, 권정희(權貞姬)는 「정화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육성 발전시켜 나갔고, 임형선(林亨善)도 「예림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미용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그러나 미용사면허제도가 입법으로 처음 도입된 것이 1961년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표준화된 미용교육이 시작된 시기는 1960년대로 보는 것이 옳다. 즉, 미용사 면허 제도를 규정한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1961년 12월 5일 제정됨으로써, 미용사 면허요건이 정비되었고, 이는 곧 미용교육 표준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부터 고등기술학교와 미용사 양성기관, 그리고 사설 미용학원이 국내 미용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1년 전문대학에 미용과가 개설되면서, 1993년 12월 27일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대학의 미용학과 졸업생들에게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2. 미용관련 학과의 설치 및 발전과정

1991년 부산의 「동주여자전문대학」과 강릉의 「영동전문대학」에 국내 최초로 미용관련 과가 개설되면서 전문대학 미용교육

이 시작되었다. 이후 미용과는 꾸준한 인기 속에 발전을 거듭하여 1997년에는 18개 학교로, 1998년에는 29개교이던 것이, 2002학년도에는 60개교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게 되었으며, 학과명칭도 다양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탈 개념의 미용과에서 탈피하여 헤어, 메이크업, 피부 관리, 향장 공학 등으로 전공 세분화를 보이기도 한다. 전문대학에 미용관련과 개설은 미용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미용인의 위상에 관련된 것이다. 즉, 대학 교육에 미용이 도입되기 이전,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단순한 기능이나 기술정도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1991년도 이후부터 기능의 차원을 넘어 기술과 학문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실용학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미용직종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9년도부터는 전문대에도 학부제가 도입되어 동주 여자대학은 미용계열학부를 설치하여 미용예술전공과 피부미용전공으로 세분화하였고, 경북과학대도 관광계열학부에 뷰티아트전공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미용교육계의 최대관심사인 4년제 대학 미용관련과가 광주여자대학교 가정정보계열학부에 미용과 학과로 신설됨으로써 바야흐로 미용의 중흥기를 맞게 된 것이다. 미용의 학문적 체계화는 대학원과정에 미용관련전공이 설치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분장 예술학 전공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에 향장 미용전공 등을 비롯하여 몇 개 대학에 미용관련 전공이 설치되었으며, 또 국민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등

에는 사회교육원의 과정으로 미용인을 위한 재교육과정이 설치됨으로써 다양한 형식으로 미용이 학문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3. 미용관련학과 현황 및 명칭

미용관련과는 단일학과에서 출발하여 학부제로 발전해 왔으며, 학과 명칭 또한 다양화되어지고 있다. 즉, 「미용」이라는 단어 뿐만 아니라, 「뷰티」, 「코디」, 「메이크업」, 「디자인」, 「아트」, 「케어」 등의 외국어를 포함시킨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로는 경동정보대학이 산업디자인계열 코디메이크업전공을, 경북과학대학이 향장 보건계열 뷰티디자인전공과 화장품(향장)전공을, 공주영상정보대학이 뷰티디자인계열을, 군장대학이 피부미용계열을, 김천과학대학이 피부미용계열 헤어 디자인전공과 피부 관리전공, 그리고 메이크업전공을, 김천대학이 뷰티아트계열을, 담양대학이 피부미용학부를, 대동대학이 피부미용계열을, 대전보건대학이 보건계열 피부미용과를, 동아인재대학이 보건계열 피부미용전공을, 동우대학이 보건계열 피부미용과를, 동주대학이 미용계열이, 부산여자대학이 보건계열 피부미용과를, 서라벌대학이 뷰티코디네이션학부를, 성화대학이 피부미용계열을, 신성대학이 미용예술계열을, 안산공과대학이 관광서비스계열 뷰티디자인과를, 강릉영동대학이 보건계열 미용예술과를, 전주기전여자대학이 실용 예술학부 헤어디자인과를, 제주한라대학이 보건계열 피부미용과를, 해천 대학이 디자인계열 코디네이션디자인전공을 설치함으로써, 모두 21개 대학에 이르고 있

다. 단일학과로 운영되는 학교의 학과명칭도 다양하다. 「피부미용과」라는 명칭으로 설치된 대학은, 경도대학, 경북대학, 경인여자대학, 광양보건대학, 광주보건대학,¹⁰ 구미1대학, 나주대학, 동강대학, 동원대학, 목포과학대학, 삼육보건대학, 선린대학, 순천 청암대학, 안동 정보대학, 우송정보대학, 전남과학대학, 정인대학, 진주보건대학, 창원전문대학, 청양대학, 충청대학 등 21개 대학이며,¹¹⁾ 양산대학과 원광보건대학은 「피부미용관리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뷰티디자인과」라는 명칭으로 설치된 대학은, 거창전문대학, 대경대학, 제주관광대학, 주성대학, 진주전문대학 등 5개 대학이며, 「코디메이크업과」라는 명칭으로 설치된 대학은, 경북 외국어테크노대학, 여수공업대학 등 2개 대학이 있다. 대원과학대학은 「메이크업 코디과」라는 명칭으로, 마산대학은 「뷰티케어과」라는 명칭으로, 안산1대학은 「뷰티아트과」라는 명칭으로, 그리고 수원여자대학은 「미용예술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작 「미용과」라는 명칭은 동남보건대학만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전문대학의 미용 관련 학과 명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전문대학의 미용관련 학과 명칭

| 미용관련학과 명칭 | 관 련 대 학 | 비 고 |
|-----------|--|-----------------------|
| 미용 | 군장대학, 김천과학대, 대동대학, 담양대학, 대전보건대학, 동아인재대학, 동우대학, 동주대학, 부산여자대학, 성화대학, 신성대학, 강릉영동대학, 제주한라대학, 경도대학, 경북대학, 경인여자대학, 광양보건대학, 광주보건대학, 구미1대학, 나주대학, 동강대학, 동원대학, 목포과학대학, 삼육보건대학, 선린대학, 순천청암대학, 안동정보대학, 우송정보대학, 전남과학대학, 정인대학, 진주보건대학, 창원전문대학, 청양대학, 충청대학, 양산대학, 원광보건대학, 수원여자대학, 동남보건대학 | 미용단어 포함한 유사 학과 38개 대학 |
| 뷰티 | 경북 과학대, 공주 영상정보대학 | 2개 대학 |
| 코디 | 경동정보대학 | 1개 대학 |
| 디자인 | 전주기전여자대학 | 1개 대학 |
| 뷰티아트 | 김천대학, 안산1대학 | 2개 대학 |
| 뷰티코디네이션 | 서라벌대학 | 1개 대학 |
| 코디네이션디자인 | 해천대학 | 1개 대학 |
| 뷰티디자인 | 안산공과대학, 거창전문대학, 대경대학, 제주관광대학, 주성대학, 진주전문대학 | 6개 대학 |
| 코디메이크업 | 경북 외국어테크노대학, 여수 공업대학 | 2개 대학 |
| 메이크업코디과 | 대원과학대학 | 1개 대학 |
| 뷰티케어 | 마산대학 | 1개 대학 |

III. 우리나라 미용교육과정의 문제점

오늘날 국내 대학교육의 현실은 뚜렷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대학진학자의 지속적 감소,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전문 인력의 취업난 등은 기존에 유지해왔던 대학교육 틀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들이 겪고 있는 총체적 양상과는 달리 미용전공분야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 누려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원인에는 고급미용문

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취업의 호황과 타 분야에 비하여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미용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현상은 미용의 위상제고와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컸지만, 한편으로는 21세기형 미용 산업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첨단성과 다양성을 띄고 있는 미용과의 명칭에 반하여 교과과정은 기존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 학교의 미용관련학과 교육목표, 교육 과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

다.

1. 교육 목표상의 문제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¹²⁾에 있다. 반면에 4년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¹³⁾으로 하고 있어,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과는 다르게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이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피부미용과는 미용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새겨야 한다. 한편, 실제 각 대학에서 표방하는 미용관련학과의 교육목표는 그 표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몇몇 학교의 사례를 다음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미용의 전반적인 이론과 기술을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건강한 미를 창출할 수 있고 응용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탈 미용전문인을 양성한다. 또한 고객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미용경영인을 육성하여 미용문화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미를 창출하는데 공헌하고자 한다.”¹⁴⁾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향유하려는 인간의 소망과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의 질적 변화로 말미암아 토탈 패션(Total Fash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학과는 미용(Hair), 메이크업(Make-up)에 바탕을 둔 전문적인 연구와

실무를 습득하여 창의적·미적 능력을 갖춘 아티스트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¹⁵⁾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다 나은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와 더불어 우리도 이젠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의 질적 변화로 말미암아 토탈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본 뷰티 아트과에서는 건강한 미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응용력을 갖춘 미용전문인을 양성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¹⁶⁾

“본과는 의학을 토대로 한 피부구조와 생리에 알맞은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피부관리 이론 및 실기, 예술적 미를 가미한 Hair 이론 및 실기, Make-up 이론 및 실기와 코디네이션 실기 등의 전공학문 뿐만 아니라 전공과 연계된 인접학문의 지식도 교육함으로써 미용에 관한 총체적인 전문지식과 실기 습득은 물론, 인간의 미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미를 창조하는 예술적인 감각까지 습득케 하여 21세기 테크노피아 시대의 미용 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미용인을 육성하고 있다.”¹⁷⁾

“인체의 생리 및 구조 성장에 따른 합리적인 피부관리 및 헤어 메이크업 등 미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체계적인 실기실습 및 현장경험을 통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토탈 미용전문인을 양성한다.”¹⁸⁾ “21세기의 미용분야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역량 있는 미용인을 배출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헤어, 피부 관리, 메이크업 부분의 교육과정을 적절히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용분야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용학, 보건학, 피부과학, 색채학, 화장품학, 영양학 등 이

른 학문분야의 과학적인 교육을 통하여 건강과 미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¹⁹⁾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볼 때, “능력과 소양을 갖춘 전문 미용기술인 양성” 및 “다양한 미용 기술 습득”이 교육 목표의 주를 이루며, 21세기에 변화하는 사람들의 미적 욕구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용에 대한 기본적 소양과 기술습득은 물론, 첨단 현대 과학과 예술적 감각까지도 고려한 전문인 양성을 위한 지식과 실기 습득을 공통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급진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인류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미용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부응하는 교육 목표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목표 상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즉, 전문대학과정을 마친 미용인이 미

양을 목표로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문대학에서는 그러한 목표에 대한 언급이 미미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토탈 패션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를 위한 확실한 언급 또한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교육목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시가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언급하기 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용 교과목의 교육 목표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2. 교육 과정상의 문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문대학별 총 이수학점은 대체적으로 83학점 내지 104학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²⁰⁾ 그런데 이 학점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는 전공과목의 경우, 교과목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점, 전공필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 표 2 > 전문 대학의 현 교육목표 및 개선 되어야할 교육목표

| 실제 적용된 교육목표 | 개선 추가되어야 할 교육목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탈 미용전문인 양성 . 미용경영인 육성 . 창의적 미적인 아티스트 양성 . 응용력 갖춘 미용전문인 양성 . 능력과 소양을 갖춘 전문 미용기술인 양성 . 다양한 미용기술 습득 . 기본적 소양과 기술 습득 . 전문인 양성을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자로서의 관리 능력 및 자질 함양 . 토탈패션에 대한 확실한 언급 |

용지도자로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자로서의 관리 능력 및 자질 함

점, 그리고 과목별 주당 교육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의 각 사항들은 교육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 교과목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공과목 중에는 동일한 내용이 교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의 명칭이 서로 달라서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헤어 미용분야 과목으로는 「모발 미용학」과 「두발 미용학」, 「스캘프&헤어케어」와 「두피와 두발관리」, 「헤어세팅 및 업스타일」과 「헤어세트」 또는 「업스타일」 등이 있다. 또한 「세트이론 및 실습」의 경우와 같이 과목 명 뒤에 「이론과 실습」을

실습」과 「미용 경락관리」, 「색채학&일러스트레이션」과 「색채학」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뷰티일러스트레이션」, 「소독법과 전염병학」과 「소독법」 및 「전염병학」, 「미용과 건강」과 「미용건강 증진학」, 「화장품학」과 「화장품과학」, 「해부생리학」과 「생리해부학」 또는 「인체생리해부학」, 「모발생리 이론 및 관리」와 「모발생리학」, 「미용마케팅관리」와 「뷰티마케팅」 등이 있다.

둘째, 전공필수와 전공 선택의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다. 동일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 표 3 > 과목 분야의 동일 내용 과목명칭의 실례

| 과목 분야 | 동일내용의 과목명칭 |
|--------|--|
| 헤어미용분야 | 모발 미용학, 두발 미용학, 스캘프&헤어케어, 두피와 두발관리, 헤어세팅 및 업스타일, 헤어세트, 업스타일 |
| 피부미용분야 | 피부관리 이론 및 실습, 에스테틱 이론 및 실습, 스킨케어, 살롱 에스테틱, 살롱 트리트먼트, 피부살롱 트리트먼트, 바디트리트먼트, 전신관리, 손·발관리, 핸드&풋마사지, 두피관리실습, 스캘프 트리트먼트, |
| 기타 과목 | 발관리 요법 이론 및 실습, 발 건강관리 이론 및 실습, 경락요법 이론 및 실습, 미용경락 관리, 색채학&일러스트레이션, 색채학, 일러스트레이션, 뷰티일러스트레이션, 소독법과 전염병학, 소독법, 전염병학, 미용과 건강, 미용 건강 증진학, 화장품학, 화장품과학, 해부생리학, 생리해부학, 모발생리 이론 및 관리, 모발생리학, 미용마케팅관리, 뷰티마케팅 |

불인 경우도 있고, 「헤어세트」와 같이 붙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피부 미용분야 과목으로는 「피부관리 이론 및 실습」과 「에스테틱 이론 및 실습」 또는 「스킨케어」, 「살롱 에스테틱」과 「살롱 트리트먼트」 또는 「피부 살롱 트리트먼트」, 「바디 트리트먼트」와 「전신관리」, 「손·발 관리」와 「핸드 & 풋 마사지」, 「두피관리실습」과 「스캘프 트리트먼트」 등이 있으며, 기타 과목 중에는 「발관리 요법 이론 및 실습」과 「발건강 관리 이론 및 실습」, 「경락요법 이론 및

하고 학교에 따라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으로 서로 다르게 채택된 사례가 있어 과연 전공필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즉, 공중위생학 관련과목을 일부학교는 전공 필수로하고 일부학교는 전공 선택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론 및 실기과목의 경우 그 수준별로 전공필수와 전공 선택의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 「피부관리 이론 및 실습2」라고 하는 과목은 일부학교에서는 전공필수로, 일부학교에서는 전공 선택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주당 교육시간의 차이에 따른 문제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실습과목의 경우 동일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따라서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피부관리 이론 및 실습1」의 경우, 경북대학은 3학점(이론 2시간+실습 2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강릉 영동대학과 경도대학 등은 2학점(이론1시간+실습2

< 표 4> 동일 과목에 대한 다른 주당 교육시간의 실례

| 동일한 과목 | 주당 교육시간 | 대학명 |
|---------------------|--------------------------|------------------|
| 피부관리 이론 및 실습1 | 3학점(이론2시간+ 실습 2시간) | 경북대학 |
| | 2학점(이론 1시간+실습 2시간) | 강릉영동대학 , 경도대학 |
| 해부생리학 | 3학점 - 주당 3시간 또는 4시간 | |
| 색채학 | 이론 2시간 | 강릉영동대학 |
| | 이론 3시간 | 동우대학 |
| | 2학점(이론 1시간+실습2시간) | 경북대학 |

시간)으로 하고 있다. 또 「해부생리학」의 경우는 3학점으로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주당 시간을 3시간 또는 4시간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색채학」은 이론 2시간인 학교(강릉 영동대학), 이론 3시간인 학교(동우대학), 이론 1시간에 실기 2시간(2학점)인 학교(경북대학) 등으로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전공 기초 과정의 경우 교양 과정과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이수하고 있는 전공

과목으로는, 미용학개론, 피부과학, 퍼머넌트, 생리해부학, 소독법 및 전염병학, cut실습, 메이크업, 피부관리 이론 및 실습, 공중 보건학, 위생법규, 영양학, 교육학개론, 특수분장, 화장품학, 염색 및 탈색, 일러스트레이션, 코디네이션, 드라이 및 업스타일, 사진학, 미용경영학, 현장실습, 한방미용 등으로 주로 법정기준에 일치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과목들은 학교에 따라 다양하였다. 또한 전공 선택과 전공 필수 기준이 불분명했으며, 각 학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전공 교과목의 수와 명칭이 학교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이수학점 범위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필수의 경우 필수로 선정하고 있는 과목의 수는 다양했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교과목은 미용학 개론, 피부과학, 퍼머넌트 실습, 생리해부학, 소독법 및 전염병학, cut실습, 메이크업실습, 피부 관리 실습, 공중 보건학, 위생법규, 색채 및 일러스트레이션, 영양학, 화장품학, 염색 및 탈색, 코디네이션, 드라이 및 업스타일, 미용경영학, 한방미용 등 전문성을 강조하는 과목이었으며, 매우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일관성이 결여된 교육과정은 이미 살펴본 미용과 교육목표 즉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지향한다는 근본 목표와는 다소 배치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는 현재 국내 대학의 미용교육의 틀이 정립되어있지 못하고, 구심축을 이룰 수 있는 뚜렷한 대안부재 또한 한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IV. 우리나라 미용교육 커리큘럼의 개선방안

최근 전문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전문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대학을 둘러싼 대표적인 환경 변화로는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 과학기술 및 정보화의 발전, 산업·직업구조의 변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 등을 들 수 있다.²¹⁾ 미용 관련 학과의 분야별 적절한 교육 및 산업체 현장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실적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미용관련 교육기관의 교육목표 및 철학, 교육과정, 교육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교육 목표상의 개선방안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하는 지식의 본질과 선정에 관한 문제, '그것을 왜 가르치는가' 하는 지식의 정당화에 관한 문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련된 교수-학습상의 방법론적인 문제, 그리고 '가르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하는 평가상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²²⁾ 따라서 교과과정에는 철학과 목적이 명백히 진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용관련학과의 교육목표에서 일반적인 목표로는 전문기술인 양성, 중견직업인 양성, 창조적 사명감과 예술적 소양 고취, 전문인양성 및 자격취득,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윤리관 함양 등이 진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용교육의 목표에 관한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전문대학에서의 미용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미용지

도자 양성에 있음을 교육 목표 상에 밝힐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의 교육목표가 중견 직업인의 양성에 있다고 하나 미용계에 있어서는 학문적으로 무장되고 체계화된 미용지도자의 양성이 주요한 목표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교육 목표상에 아예 그와 같은 진술을 함으로써 그 목표를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기능위주의 교육목표에 예술적 소양의 함양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술로서의 미용'이 아닌 '예술로서의 미용'으로 승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미용은 기능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분야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두 가지 요소가 고르게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전문대학과정에서는 오히려 예술적인 요소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 교육 과정상의 개선방안

전문대학의 미용관련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헤어, 메이크업, 피부 관리, 네일을 포함한 손·발 관리 분야 등 많은 분야로 진출하는데 있어, 이들이 단기 교육을 이수한 학원생보다 질적인 대우를 받는 미용 전문가로 인식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²³⁾ 따라서 미용계의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미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교육 등을 기초로 하는 특성화 방안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론 및 실습 과정을 비교 분석해 볼 때 사실상 이론 수업이 더 많고 실습 과목 평균치를 교육 과정 편성 상 타당한 비율

을 고려하도록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각 대학의 편성 비중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이 과연 전문인으로서 그 기술적 효과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며,²⁴⁾ 각 대학마다 헤어, 피부관리, 메이크업, 네일 관리 비중이 많이 달라 이러한 교과 과정 운영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는 인력의 출신 학과를 중심으로 졸업 후의 직업에서 요청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분석과 개발²⁵⁾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미용관련 산업 현장의 특성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과목의 채택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전문대학 미용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상에는 교양과정보다는 전공과정을 더욱 중시하여 학점 배정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전공과목은 그 수가 방만하게 나열되어있고, 과목 명칭이 비슷 비슷하여 혼동을 자아내며 주요 전공과목들은 학년과 학기가 변하여도 한 가지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과목의 특성이 부각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학점이 적은 학과목들은 과목 명칭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어 분과적인 교육과정 모형 같은 인상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전공과목 명칭의 표기방법, 내실 있는 과목의 통폐합을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교육 강화를 위한 학과목의 삽입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미용학이 주요 고유학문으로 발전되기 위해 학문의 영역에 대한 한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²⁶⁾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전공과목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전공과목은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교육이 강조되는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낡은 구시대의 기술은 학습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패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목의 중복을 배제하여야 한다. 현행 전공교과목은 동일한 명칭으로 단계만을 정해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같은 과목이면서도 명칭만을 달리하여 중복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목의 내용에 맞는 표준 명칭을 개발하여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공 공통필수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미용관련학과의 전공별로 반드시 이수해야할 공통필수과목을 개발하여 적용해야한다.

넷째, 전문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즉 현장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과목으로 선정하여 보다 과학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교과과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V. 결 론

오늘날 한국에서의 미용교육은 학문적 차원의 전문화와 더불어 양적인 팽창기를 맞고 있다. 전문대학의 미용학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나아가 4년제 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으

며, 심지어는 미용고등학교가 설립될 정도로 교육 대상의 폭이 날로 넓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 미용교육기관의 교육과목은 대체적으로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 일아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세분화·전문화 과정을 겪고 있으나, 아쉽게도 이러한 교육과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 교육과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교육목표를 미래지향적으로 정하지 못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둘째, 학과명칭에 관한 문제다. 전문대학의 미용관련학과 졸업생에게는 공중 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미용사면허」가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일견 전문대학은 토탈 미용 교육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과명칭을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교과목 명칭에 관한 문제다. 교과목 명칭도 동일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표준화되지 아니한 채 학교마다 차이를 두고 있어 혼란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있다.

넷째, 전공필수와 전공 선택의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공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전공 선택과목이 되고 있는 등 전공필수와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다섯째, 주당 교육시간의 차이에 따른 문제가 있다. 동일한 실기과목인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2학점으로 이론1시간, 실습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3학점으로 이론1시간, 실습3시간으

로 구성되는 등 일정한 표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현행 전문대학에서의 미용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미용지도자 양성에 있음을 교육 목표상에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기능위주의 교육목표에 예술적 소양의 함양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술로서의 미용'이 아닌 '예술로서의 미용'으로 승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학과명칭을 교육과정의 내용과 일치하게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헤어미용, 피부미용, 또는 메이크업을 구분하여 전공별로 각각의 교과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학과명칭도 그 교과과정 내용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과목 명칭의 표준화도 절실히 요청된다. 적어도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명을 통일해야 할 것이며, 학계의 다양한 연구과정을 통해 표준이 되는 교과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공필수과목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공별로 일정한 단위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간에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교육 시간 수에 관해서도 학교 간에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학제간의 교과과정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학원 및 고등기술학교에서의 교과과정과 고등학교에서의 교과과정, 그리고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과정 등 각각의 학제별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전문대학의 미용교육현장에 반영됨으로써, 21세기의 변화하는 미용 산업계의 현실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1) '미용과'라는 학과명칭은 영동전문대학, 동남보건대학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 2) '피부미용과'라는 학과명칭은 동우대학, 경북대학, 동원대학, 수원여자대학, 진주보건대학, 창원전문대학, 경도대학, 구미1대학, 서라벌대학, 선린대학, 안동정보대학, 광주보건대학, 동강대학, 대전보건대학, 우송정보대학, 대동대학, 부산여자대학, 춘해대학, 삼육보건대학, 경인여자대학, 광양보건대학, 나주대학, 목포과학대학, 성화대학, 순천 청암대학, 전남과학대학, 정인대학, 제주한라대학, 청양대학, 충청대학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 3) '뷰티디자인과'는 거창전문대학, 대경대학, 안산공과대학, 제주관광대학, 주성대학, 진주전문대학 등이 사용하고 있다.
- 4) '코디메이크업과'라는 명칭은 경북 외국어테크노대학, 여수공업대학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 5) 대원과학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다.
- 6) 대구미래대학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 7) 대구보건대학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 8) 이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대학은 다음과 같다. 경도대학, 경북대학, 경인여자대학, 광양보건대학, 광주보건대학, 구미1대학, 담양대학, 대동대학, 대전 보건대학, 동남보건대학, 동우대학, 부산여자대학, 삼육보건대학, 선린대학, 안산공과대학, 강릉영동대학, 우송정보대학, 원광보건대학, 전주기전대학, 제주한라대학, 해천대학 등이다.
- 9)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2000).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p.315.
- 10) 광주보건대학은 피부미용과에 헤어전공, 피부관리전공, 메이크업전공으로 분류되어 있다.
- 11) 학부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학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12) 고등교육법 제47조 본문 참조.
- 13) 고등교육법 제28조 참조.
- 14) 서울보건대학 보건계열 미용예술과 교육목표.
- 15) 안산공과대학 관광서비스계열 뷰티디자인과 교육목표.
- 16) 안산1대학 간호·보건계열 뷰티 아트과 교육목표.
- 17) 마산대학 뷰티 케어과 교육목표.
- 18) 대전 보건대학 보건계열 피부미용과 교육목표.
- 19) 원광보건대학 보건계열 미용피부 관리과 교육목표.
- 20) 양복희(2000). 2년제 대학 미용관련과 교육과정 실태조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이정표(2001). 전문대학에서의 선행학습 평가인정제의 구축 운영 방안. 교육 인적자원부, p.11.
- 22) 진영은 외(2002). 교육과정과 교과평가의 탐구. 학지사, p.109.
- 23) 신지현(1999).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의 발전화 방안. 한국 미용학회지, 5(1).
- 24) 신지현. '앞의 책'.
- 25) 권영자(1995). 전문대학 피부미용과 교육과정 수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미용학회지, 1(1).
- 26) 양복희. '앞의 책', p.39.